

2월 둘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韓 여행전문가, 인도네시아 매력 알릴 팸투어 (p.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019900371>)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개...국민의견 접수 (p. 2)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58>)



AEO수출기업 인도네시아 현지서 신속통관·수입검사 축소 (p. 3)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467>)



'신종코로나'로 인도네시아 나시고랭값 오른다 (p. 4-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113253085213>)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개...국민의견 받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입력 : 2020-02-09 11:15:26 수정 : 2020-02-09 18:08:03 게재 : 2020-02-09 18:18:07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특별수석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8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와 이 기간 들어온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개...국민의견 접수

이현수 기자 승인 2020.02.10 17:04

2월 18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협정문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국민의견 반영 여부 검토 후 한글본 확정하고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추진



지난해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유명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앙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0~18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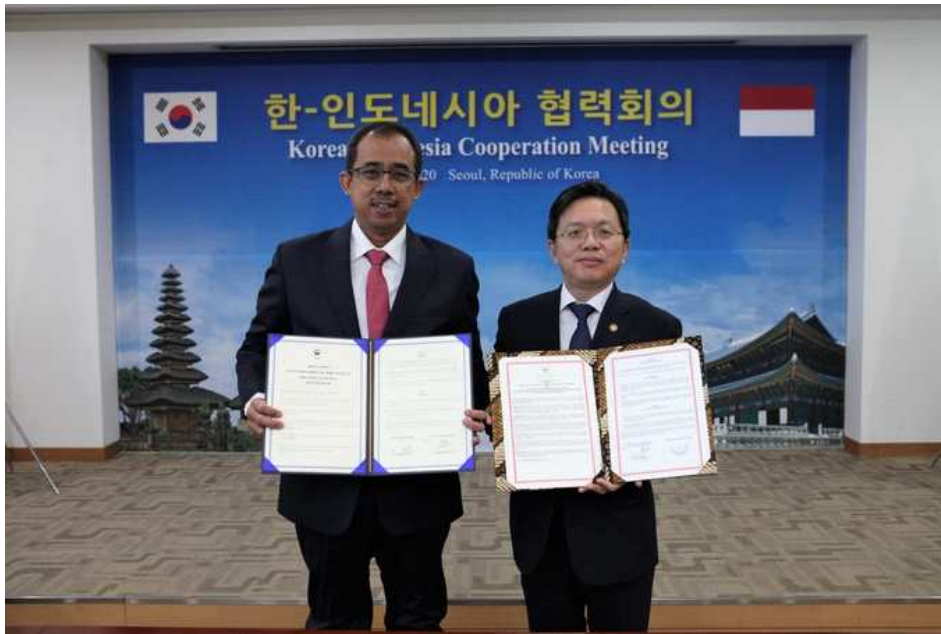
추가 문의 및 접수는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순목 서기관(soonmok@korea.kr)/최진경 주무관(jkkorea@korea.kr), 통상분쟁대응과 손지영 사무관(sohnjy@motie.go.kr)에게 하면 된다.

AEO수출기업 인도네시아 현지서 신속통관·수입검사 축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등록 2020.02.06 10:12:27

관세청,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AEO MRA 체결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은 인니 현지에서의 신속한 통관과 수입검사를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통해 비관세장벽 효과를 누리게 된다.



▲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과 헤루 팜부디 인도네시아 관세청장이 AEO MRA 체결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데 이어,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AEO MR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또한 이번 양국간의 AEO MRA 체결로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중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한·중간의 AEO MRA 체결 이후 수입검사율이 75% 축소됨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79% 가량 단축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로 인도네시아 나시고랭값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2.12. 0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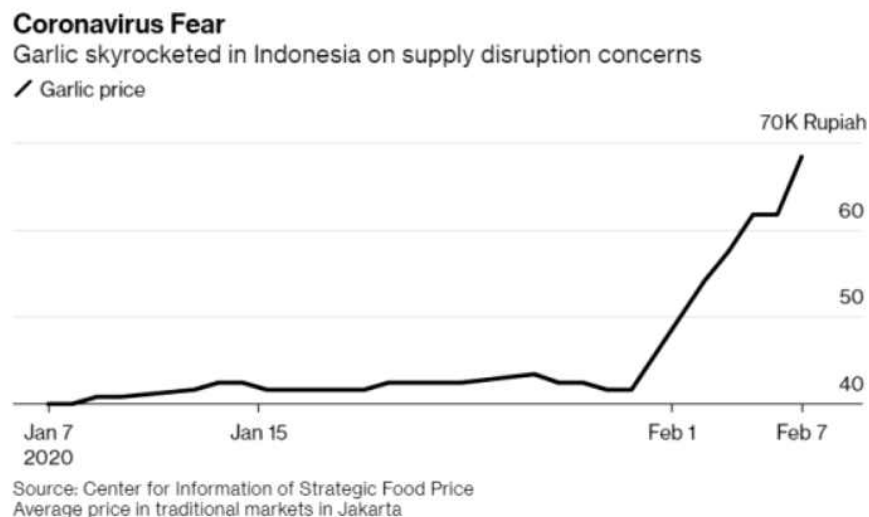
장기간 기업활동 중단으로 물류 지체...인도네시아 마늘, 브라질 대두 등 수출입 차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 식료품 값이 들쭉이고 있다. 중국 내 장기간 기업활동 중단으로 물류는 지체됐는데, 식자재 사재기는 크게 늘어나 중국내 식료품 물가는 크게 올랐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입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먹거리 사정도 위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마늘 가격 일주일만에 70% 급등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선 마늘 가격이 불과 일주일 만에 70% 가까이 치솟았다. 자카르타의 마늘 소매 가격은 지난달 31일 킬로그램당 4만1600루피아(약 3606원)에서 7일 6만8300루피아(약 5921원)로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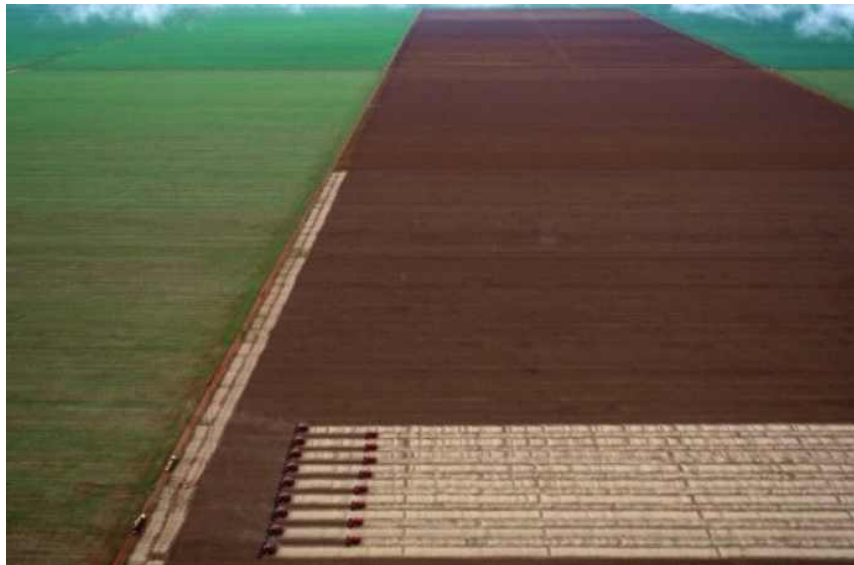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소비되는 마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온다. 중국이 2018년 생산한 마늘량은 2200만t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마늘 수입국으로 연간 수입량이 50만t을 넘어선다. 그 중 90%가 중국산이다.

인도네시아의 매운 소스 '삼발'에서부터 전통음식 '나시고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도네시아 대부분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 마늘값 상승은 곧바로 체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압둘라 만수리 인도네시아 시장상인연합(IKAPPI) 회장은 "신종 코로나가 불안 심리를 부추기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수입을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마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격안정화 조치로 마늘 보유분 20t을 풀고 kg당 3만루피아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늘 소매가격이 5만 루피로 떨어질 때까지 마늘 재고량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마늘 재고가 한달치 정도에 불과한데다 현지 생산량이 연간 수요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마늘 파동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 대두 수출에도 차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작물의 수입뿐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월 첫 5일동안 브라질 대두 수출은 지난해 2월 하루평균 26만3500t에서 19만8600t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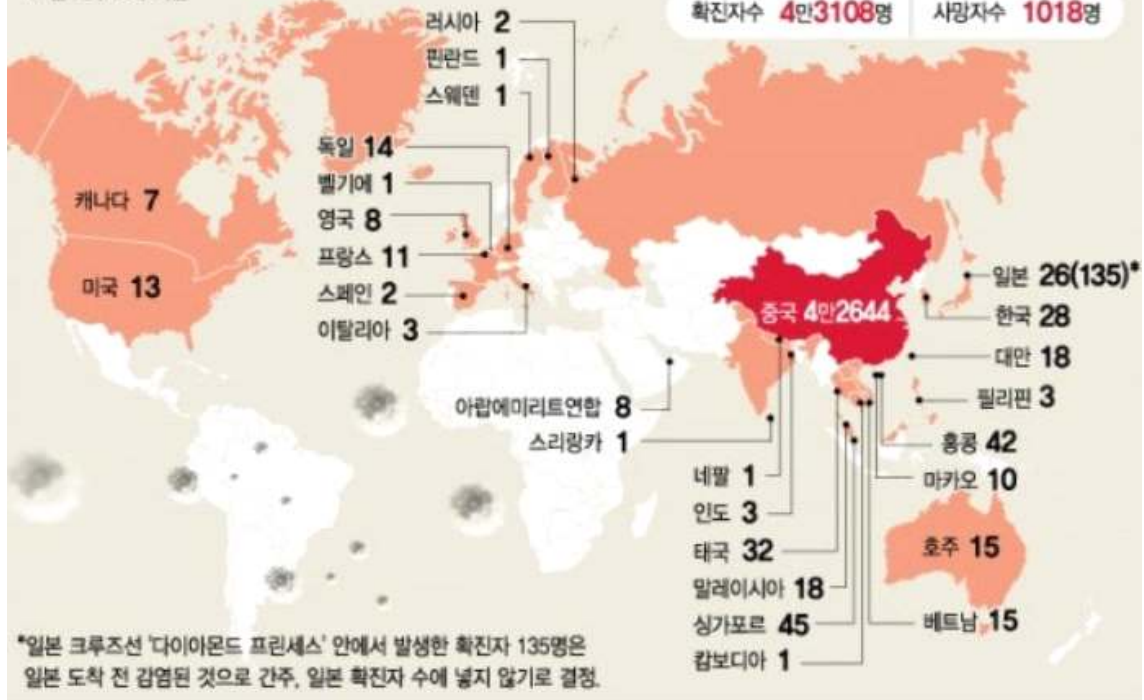
호세 아우구스토 데 카스트로 브라질 무역협회장은 "신종 코로나 충격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충격이 2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결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영향의 규모와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농업은행인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10일 "노동자들이 춘제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대두 가공 공장들이 계속 대두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계속되는 한 그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 농업협회인 아프로소자 브라질의 회장 바르톨로뮤 브레이즈는 "현재 브라질산 대두의 60% 이상이 선주문 되어있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농부들을 떨어뜨려놓은 상태"라면서도 "이것은 질병이 통제될 때까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전세계 28개국 '신종코로나' 확산 지도 (단위: 명)

*11일 오후 3시 기준



*자료: 미 존스홉킨스대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그래픽: 이승현 디자인기자